

정부의 치매노인 대책

1. 실태



고도의 경제성장과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95년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전인구의 5.7%인 254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2천년에는 6.8%, 2,010년에는 9.4%에 이르러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가정의 노인부양기능이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는 반면,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만성퇴행성질환 노인은 점증하여 현재 전노인의 86.8%가 치매·중풍 등 만성퇴행성질환 노인이며 26.6%의 노인이 식사, 목욕, 외출 등 일상생활에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4.2%의 노인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의 상태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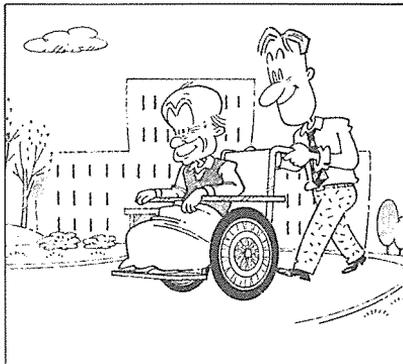
특히 65세이상 전체노인의 2%가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는 바 일단 발병을 하면 84.8%가 비가역성이며 치매환자의 78.3%가 보호자의 상시 간병이 요구되고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유병률이 급증함을 고려할 때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치매유병률

구 분	전 체	65~69	70~74	75~79	80세 이상
전 체	2.0%	0.9%	0.5%	2.2%	8.8%
남	1.7%	0.8%	0.6%	3.9%	6.3%
여	2.1%	0.9%	0.4%	1.3%	9.3%

* 자료 :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사연, 1995년)

2. 주요시책내용



가. 정부에서는 '92년 5월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93년 12월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유료양로원, 요양원 및 유료제가 노인복지사업에 개인이나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였고, 치매·중풍 등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운 중증노인을 주로 보호하는 요양시설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강화하였다.

정부에서는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치매 등의 노인을
위한 전문병원을
시·도별로
1개소씩 설치토록
국민연금기금으로
융자지원 할
계획을 세우는 등
노인복지종합대책을
세워
추진 중에 있다.

나. '94년 6월에는 21세기를 대비하는 노인복지종합대책을 세워 추진중인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치매·중풍 등 가정에서 보호·부양할 수 없는 노인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을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에 모두 6개소를 건립중이며, 이를 '98년까지 20개소로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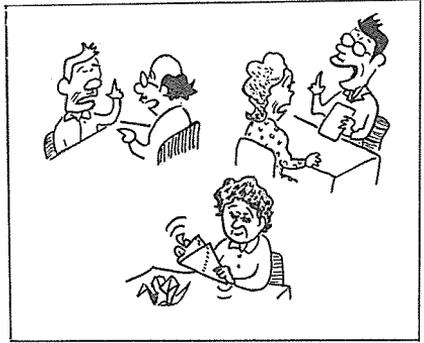
2)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치매 등 노인을 위한 전문병원을 시·도별로 1개소씩 설치토록 국민연금기금으로 융자지원

3)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식사시중, 병원안내,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23개소에 대해 현재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2천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소씩 270개소로 확충

4) 맞벌이 부부가정,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낮동안 요보호 노인을 가정에서 보호·부양할 수 없는 가정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9개소, 부양가족의 단기 출타 또는 외병시 노인을 일시 보호해주는 단기보호시설 6개소를 2천년까지 각각 60개소와 80개소로 확충

다. 치매에 관한 전문연구·조사기능을 갖춘 전문연구기관을 설립지원하여 동질환의 효과적인 예방·진료 및 요양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다.

라. 그리고 이상과 같은 시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금년도 중 노인건강관리법을 제정하여 현행 급성질환 치료 중심체제에서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인에 대한



건강상담,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과 적절한 치료, 요양, 재활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계획인 바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대책외에도 민간부문에서, 치매 등 만성퇴행성 질환 노인을 위한 요양기관 및 진료시설 설치 등의 사업부문에 많은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 1)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검진 및 노인성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 2) 가정에서의 거동불편 외병노인을 위한 가정간호제도 등 재가의료제도 도입
- 3) 치매·중풍 등 만성퇴행성 질환에 알맞는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병원 설치
- 4) 노인건강관리사업 재원조달 방안 강구 등

마.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치매 등 만성퇴행성 질환 노인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민간부문에서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노인을 위한 요양기관 및 진료시설의 설치와 재가치매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등의 사업부문에 많은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㉓

의식개혁 내가먼저

고통분담 우리모두
인간답